

# TOBACCO CONTROL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 ISSUE REPORT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WHO FCTC 제6차 당사국 총회

# 10

## Infographic

FCTC 제6조 담배가격 및 조세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 Monthly Updates

이 달의 정책  
이 달의 연구

## Monthly Highlights

담배규제기본협약과 당사국 총회  
제6차 당사국 총회  
제6차 총회 주요성과 및 향후 담배규제 정책에의 의의

## Monthly Keyword

담뱃값, 청소년, 담배소송

Vol. 18, October 2014

#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 Contents

### Infographic

03 FCTC 제6조 담배가격 및 조세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 Monthly Updates

04 이 달의 정책

06 이 달의 연구

### Monthly Highlights

09 담배규제기본협약과 당사국 총회

10 제6차 당사국 총회

13 제6차 총회 주요성과 및 향후 담배규제 정책에의 의의

### Monthly Keyword

14 담뱃값, 청소년, 담배소송

기획총괄 오유미  
편집·구성 이정은 장영림 차정림 양유선

# FCTC 제6조 담배가격 및 조세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TCIR INFOGRAPHIC No.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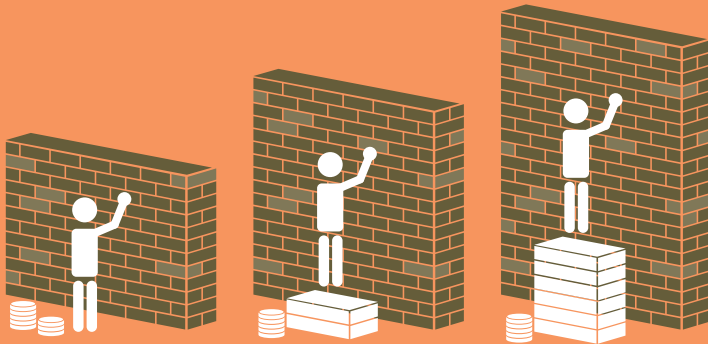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 담뱃세 정책의 효과

담뱃세 인상은 담배사용(흡연)감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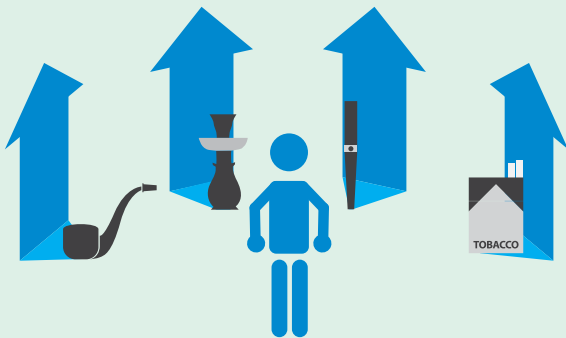
- 소비자 가격의 10%를 담뱃세로 인상할 경우,
  - 고소득국가의 담배소비 4% 하락
  - 중·저소득국가의 담배소비 5% 하락



## 담배구매력을 고려하여 담뱃세 인상 수준 설정

담뱃세를 올릴 때, 담배 가격이 높아 구매하기 부담스럽도록 (즉 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물가 인상, 가계 소득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담뱃세를 정기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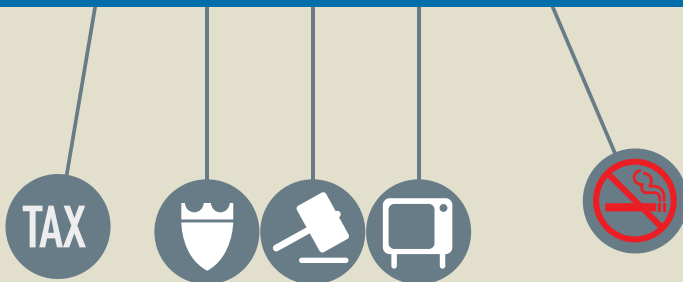


## 모든 담배제품에 동일한 수준의 세율 적용

담뱃세, 담배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더 싼 브랜드나 더 싼 다른 종류의 담배로 바꾸지 않도록 세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다

## 담뱃세의 효율적인 집행

담배제품의 제조 및 수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불법·적법 제품을 구분할 뿐 아니라, 세법 준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세금을 납부했다는 표시(납세필증, fiscal marking)를 부착하는 것을 고려한다.



## 담뱃세를 담배규제 추진에 활용

담뱃세로 거둔 세수를 담배 규제 프로그램(금연지원서비스, 금연캠페인 등 담배규제정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달의 정책

### 프랑스, 2016년부터 담뱃갑 무광고 포장 시행

프랑스에서도 담뱃갑 포장을 일원화한 무광고 포장(Plain Packaging)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번 달 8일, 프랑스 보건부 장관 Marisol Touraine는 16세 이하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2016년부터 담뱃갑의 모양, 크기, 색, 활자체를 모두 통일한 무광고 포장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젊은 흡연자들에게 흡연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자 함이다. 이러한 조치는 세계 최초로 무광고 포장 정책을 시행한 호주의 사례와 유사하지만, 호주의 경우, 담뱃갑에 회사 상표와 로고가 없는데 반해 프랑스에서는 상표를 부착할 수 있다. 따라서 상표 크기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며, 항상 같은 위치에 표기하도록 제한된다. 이와 더불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학교 운동장과 12세 이하 어린이가 탑승한 차 안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특정 공공장소에서의 전자담배 사용 역시 제한될 예정이다.

### 태국에서 물담배, 전자담배 수입 금지한다

태국에서 '후카(Hookah)' 형식의 물담배와 전자담배의 수입이 금지된다. 태국 정부 부대변인 Sansern Kaewkamnerd은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내각에서 최종적으로 이 신종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처음 보건부에서 물담배와 전자담배가 청년층의 흡연을 조장한다는 이유를 들어 제안되었으며, 상무부와의 논의 끝에 내각에 상정되어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담배 향료로 사용되는 바라쿠(baraku)의 수입 역시 금지되지만, 흡연이 허용되는 몇몇 지역에서는 바라쿠를 사용하는 것이 아직까지 합법이다. 수입 금지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혹은 해당 제품 가격의 5배에 달하는 벌금 혹은 징역과 벌금 모두를 부과 받게 된다.

# Monthly Updates

## 이 달의 정책

### 인도, 2015년 4월 부터 담뱃갑 면적의 85% 건강 경고 부착

2015년 4월부터 인도의 모든 켈런 및 그 밖의 담배제품에 포장 면적의 85%에 달하는 건강경고가 부착된다. 향후 인도에서는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을 담은 그림(사진)이 면적의 60%, 경고 문구가 25%를 차지하도록 하게 되며, 건강 경고 도입에 따른 비용은 담배 회사에서 부담하게 된다. 현재 인도에서는 건강경고가 담뱃갑 면적의 40%를 차지하도록 하며, 내년 상반기 이 조치가 시행되면, 가장 강력하게 경고그림을 시행하고 있는 태국(85%)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시행하게 된다. 캐나다 암협회(Canadian Cancer Society)에서 최근 발간한 켈런 담뱃갑 포장 건강 경고 국제 현황 보고서(Cigarette Package Health Warnings, International Status Report, 4th Edition)에 따르면, 건강 경고그림을 도입한 국가는 전 세계 77개이며, 이 중 경고그림이 포장 앞·뒷면 면적의 80%를 넘는 국가는 태국(85%, 앞면-85%, 뒷면-90%), 호주(82.5%, 앞면-75%, 뒷면-90%), 우루과이 (80%, 앞·뒷면 모두 80%)가 있다.

### 영국 런던의 대중교통 시설, 전자담배 사용 금지

지난 8월 말부터 런던 내 대중교통 시설에서의 전자담배 사용 금지 조치가 이번 달 22일에 공식화 되었다. 이로써 승객들은 향후 지하철, 열차, 버스는 물론, 역, 플랫폼, 터미널 등 런던교통공사가 관할하는 모든 지역에서 전자 담배를 사용할 경우,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지하철에서는 이미 전자담배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기차, 버스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고 전자담배를 사용할 시, 직원이 구두로 경고를 하고,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지만, 지금까지 벌금이 부과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런던교통공사의 관할지역이 아닌 탓에 버스 정류장은 전자담배 이용 금지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 이 달의 연구

### 키프로스에서 서비스업 수익에 금연정책이 미치는 효과: 계량경제학 접근

The effect of smoke-free policies on hospitality industry revenues in Cyprus: an econometric approach

Michael A Talias et al(2014)

Tob Control Published Online First 7 October 2014

doi:10.1136/tobaccocontrol-2013-051477

담배업계와 서비스업 소유주들은 실내 공기를 개선하고, 간접 흡연에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 실시되는 금연정책이 자신들의 소득을 줄어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도입된 금연법이 서비스 산업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키프로스의 부가가치세 담당 부서로부터 2005년~2011년 사이의 호텔, 바, 레스토랑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의 수익 관련정보를 토대로 패널 연구를 통해 금연법이 서비스 업계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이 때 GDP, 인플레이션, 실업률, 관광객 수, 계절에 따른 변화, 경제 위기 등의 요소를 조정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흡연율, 흡연에 찬성하는 사회적 태도, 담배 규제가 약한 지역, 경제 위기 기간이었다 하더라도 금연법이 서비스 업계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년기 여성의 유아기 시절 담배 연기에의 노출과 우울증 증상

Early Life Exposure to Cigarette Smoke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Women in Midlife

Hoda Elmasry et al(2014)

Nicotine Tob Res 16 (10): 1298-1306 (2014)

doi: 10.1093/ntr/ntu070

직접흡연이 우울증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과 우울증 간의 상관관계, 특히 유아기 시절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것과 우울증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임신 기간 동안 어머니의 흡연과 유아기 시절 간접 흡연에의 노출이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 자료는 어머니의 임신 중 흡연 여부, 부모의 특성이 드러나는 데이터, 태어난 딸에 대한 7세까지의 추적 조사 내용, 딸의 중년기(38-44세)에 재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흡연 이력, 인생 과정에서 겪은 유아기 시절의 간접 흡연 노출, 그리고 역학 연구 센터 우울증 척도를 이용하여 현재 우울증 증상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어린 시절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것은 중년기의 높은 우울증 위험과 연관성이 있었으며, 직접적인 흡연은 우울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연구 결과, 태아기 및 유아기 시절, 담배연기에의 노출은 이후 삶에서의 흡연습관 형성 및 우울증 위험을 높였다. 결론적으로 간접흡연이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전국 성인 흡연 조사를 통해 살펴 본 담배연기에의 노출 및 직장 내 금연에 대한 미국 직장인의 태도

Exposure to Secondhand Smoke and Attitudes Toward Smoke-Free Workplaces Among Employed U.S. Adults: Findings From the National Adult Tobacco Survey

Brian A. King et al(2014)

*Nicotine Tob Res* 16 (10): 1307-1318 (2014)

doi:10.1093/ntr/ntu069

본 연구는 담배 연기에의 노출과 직장 내 금연에 대한 태도 간의 연관성과 더불어, 간접흡연에의 노출이 어느 정도로 만연해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워싱턴 DC를 포함한 모든 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데이터를 취합하였다. 지난 7일 간의 직장 내에서 담배연기에 노출된 것과 직장 내 실내·외 금연 실시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이 때 성별, 연령, 인종(민족), 교육, 연간 가계 수입, 성적 성향, 미국 내 지역, 그리고 흡연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미국 직장인 중 비흡연자의 5분의 1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직장 내 실내 금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실외 공간 역시 금연구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담배연기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직장 내 금연의 이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 간접흡연에의 노출로부터 고용인을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 초기 단계 흡연자들의 흡연에 대한 정서적 동기

Affective Motives for Smoking Among Early Stage Smokers

Amanda R. Mathew et al(2014)

*Nicotine Tob Res* 16 (10): 1387-1393 (2014)

doi:10.1093/ntr/ntu093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흡연의 동기를 확인해 흡연의 시작을 예방하고, 금연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연구진은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참가자들이 1) 긍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 PR)를 위해 흡연을 더 적게 하고, 2) 부정적 강화(negative reinforcement, NR) 때문에 더 흡연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에 흡연에 미치는 상대적인 기여도를 측정하였다. 16~20세 사이 111명의 간헐적 혹은 매일 흡연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흡연 동기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세 가지 니코틴 의존도 평가(파거스트롬 검사, 흡연 자율성 척도, 니코틴 의존 증후군 척도)를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매일 흡연자는 간헐적 흡연자에 비해 모든 의존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고, 부정적 강화(NR)에 의한 흡연 동기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니코틴 의존도는 부정적 강화(NR)에 의한 흡연동기와 더 관련성이 높았다.

## 이 달의 이슈



[www.cop6russia.org](http://www.cop6russia.org)



**Шестая сессия Конференции Сторон  
Рамочной Конвенции ВОЗ по Борьбе против Табака**  
Москва,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13-18 Октября, 2014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6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었다. 내년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이번 당사국 총회는 그 어느 때 보다 지금까지의 협약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졌다. 이번 달 집중이슈에서는 제6차 총회에서 논의된 핵심 쟁점들과 주요 결정내용을 통하여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조명해 본다.



# Monthly Highlights

## 이 달의 이슈

### 담배규제기본협약과 당사국 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 협약으로, 2003년 세계보건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이후 2005년 이를 비준한 당사국이 40개가 넘어 정식 국제조약으로서 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현재 협약 당사국은 179개국으로, 국제 연합(UN) 출범이후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2014년 10월 기준). 협약은 무역을 통한 이익보다 담배규제를 통한 공중보건이 우선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담배사용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피해를 줄이고 흡연율을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운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이다. 당사국 총회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집행부로서, 협약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의정서나 가이드라인 등을 채택하는 등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또한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하위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실례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간 협상체(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Body)에서 작업한 의정서 최종본이 지난 5차 총회에서 채택된 바 있으며, 가이드라인 초안 작성 및 개정을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역시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따라 그 구성과 업무범위가 정해진다. 그 밖에도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 운영을 위한 업무계획 및 예산이 검토 후 승인되고, 차기 총회의 시기와 일정이 결정된다.

당사국총회의 의제는 협약 사무국과 의장단이 상의하여 선정하며,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식의제로 추가될 수가 있다. 당사국총회의 이사회 격인 의장단(Bureau)은 WHO의 6개 지역에서 각 1명의 대표를 선출하여 의장 1명과 부의장 5명으로 구성한다. 매 당사국총회의 폐회 직전에 차기 의장단을 선출하는데, 이 때 선출된 의장단은 해당 총회 폐회 직후부터 차기총회 폐회 직전까지 의장단으로서 당사국총회의 결정사항들의 이행을 총괄하며 이와 관련된 협약사무국의 업무를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당사국총회는 크게 전체회의(Plenary meeting), 분과회의(Committee meeting), 지역회의(Regional meeting) 로 나누어 통상 5.5일간 이루어진다. 의장단의 의장이 주재하는 전체회의에서는 협약의 운영 전반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안건들을 상정하는데 의정서 채택, 2년마다 발표되는 세계이행보고서 검토, 차기 총회 일정 및 장소 결정과 차기 의장단 선출 등이 있다. 분과회의는 협약 조항들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분과 A (Committee A)와 협약 이행 지원을 위한 예산, 규정 및 조직운영 등의 사안을 다루는 분과 B (Committee B)로 나뉜다. 지역회의는 각 지역별로 합의를 도출하거나 논의할 사안을 주로 검토하여 전체회의 또는 분과회의에서 지역적 차원의 발언문이나 결정문(regional statement/ regional decision)을 제출하기도 한다.

협약 발효 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008년부터 격년으로 당사국총회가 개최되었으며, 2년 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던 제5차 총회에서의 주요 성과는 협약 최초의 의정서인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와 담배업계의 담배규제 정책 저해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서울선언문(Seoul Declaration)이 채택된 것이다. 또 다른 성과는 우리나라의 문창진 전(前) 보건복지부 차관이 차기 총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어 의장국으로서 담배규제 분야의 리더십을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의 당사국총회 개최 현황과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Monthly Highlights

이 달의 이슈

## <역대 당사국 총회 주요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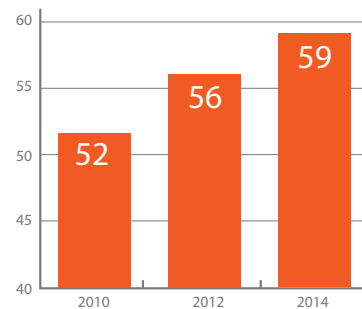
구분	기간	장소	참여국	주요사항
1차	06.2.6 ~2.17	스위스 제네바	11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약 사무국 운영 및 예산운용 규칙 채택</li> <li>•이행보고서 개발 논의</li> <li>•의정서 개발 논의</li> <li>•제8조, 제9조 가이드라인 제정 논의</li> </ul>
2차	07.6.30 ~7.6	태국 방콕	14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8조 가이드라인 채택</li> </ul>
3차	08.11.17 ~11.22	남아공 더반	12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5.3조 가이드라인 채택</li> <li>•제11조 가이드라인 채택</li> <li>•제13조 가이드라인 채택</li> </ul>
4차	10.11.15 ~11.20	우루과이 몬타 델 에스테	13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910조 부분적 가이드라인 채택</li> <li>•제12조 가이드라인 채택</li> <li>•제14조 가이드라인 채택</li> </ul>
5차	12.11.12 ~11.17	대한민국 서울	13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채택</li> <li>•서울선언문 채택</li> <li>•제910조 부분적 가이드라인 채택</li> </ul>

## 제6차 당사국 총회 (Six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2012년 제5차 총회에서의 결정에 따라, 6차 총회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 전체 179개 협약 당사국 중 137개 국가의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제6차 당사국 총회는 다양한 측면에서 역대 총회들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총회였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먼저, FCTC 발효 10주년을 앞두고 개최된 총회인 만큼, 협약이 이룩한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12년 5차 총회 개최 이후로 급격하게 성장한 전자담배 유통 및 마케팅과 같이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당사국들의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총회 의장국으로서 담배규제 분야의 리더십을 확립하는 기회이자 향후 국내 협약 이행 추진의 원동력이 되었다.

### 발효 10년, FCTC 이행을 위한 그간의 노력 : 2014년 세계이행보고서 발표

총회 첫날 전체회의에서는 전 세계 협약 당사국의 FCTC 이행현황을 보여주는 세계이행보고서 (Global Progress Report)의 2014년 판이 발표되었다. 2014년 세계이행보고서는 16개 협약 조항에 관한 146개 이행지표로 구성된 이행보고서를 총 130개 국가에서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작성되었으며, 그 결과 협약의 주요 조항들의 전반적인 이행률은 6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보고서를 통하여 협약의 이행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10년, 2012년, 2014년의 전반적인 이행률을 비교한 결과 각각 52%, 56%, 59%로 협약 이행의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출처 : Global progress in implementation of the WHO FCTC - a summary.  
([http://apps.who.int/gb/fctc/PDF/cop6/FCTC\\_COP6\\_5-en.pdf](http://apps.who.int/gb/fctc/PDF/cop6/FCTC_COP6_5-en.pdf))

조항별로는 제8조 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 제16조 미성년자의 담배판매 및 구매, 제11조 담배제품의 포장과 라벨, 제12조 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인식제고의 순으로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반면, 제17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담배경작 대체활동 지원제공과

# Monthly Highlights

## 이 달의 이슈

제19조 책임의 이행률은 각각 13%와 14%를 기록하여 전 세계적으로 미진한 이행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협약 이행의 추세를 살펴보면 큰 폭의 담뱃세 인상, 실외공간까지 금연구역 확대, 담배제품에 첨가물 금지, 판매점에서의 담배제품 진열 금지, 무광고포장과 같은 강력한 담뱃갑 포장규제 및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한 금연지원 등과 같은 혁신적인 정책 추진의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선제적인 추진이 다른 나라의 담배규제 정책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흡연율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나라들 가운데 2/3 가량이 실제로 성인흡연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담배 시장의 성행을 담배규제 추진의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들 제품의 수입, 사용 및 광고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국가도 적지 않았다. 그 밖에도 많은 당사국이 여전히 담배업계의 정책 저해활동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여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가간의 인식이 공유되었다.



[FCTC 제6차 당사국 총회 개최선언]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현황을 발표하는 모습]

### 협약 이행 가속화를 위한 노력 : 가이드라인과 결정문 채택

이번 총회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역시 협약 제6조 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채택된 것이다. 제6조 가이드라인은 담뱃세 인상이 담배사용 감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실효적인 담배가격 정책을 통한 담배구매력 감소와 투명한 조세운영, 확보된 세수를 담배규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제6조 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 이행 가이드라인의 주요 권고사항>

- **조세제도 및 구매력** | 담뱃세 인상 시, 가격 및 소득탄력성, 인플레이션, 가계소득변화 등을 감안해 담뱃세를 정기적으로 조정(인상)해야 함
- **담뱃세 구조** |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조세체계를 실시. 종량세(specific excise system) 혹은 종량과세 최저액 기반 혼합세(mixed excise systems with a minimum specific tax floor)의 실행을 고려해야 함
- **적용세율** | 세율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조정해야하며, 인플레이션 및 소득증가 등을 고려해 가능한 매년 이루어져야 함
- **조세부담** | 소비자들이 담뱃세 및 가격 인상에 따라 더 싼 제품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동일·이종 담배 제품 간 비슷한 수준의 조세부담 적용
- **허가** | 담배제품의 공급망 규제와 관련한 허가, 승인, 관리 체계를 투명하게 운영
- **창고체계, 소비세 대상 물품의 이동 및 납세** | 담배제품의 제조·수입 시점 혹은 출고 시점에 세금을 징수, 혹은 매달 정해진 기간 혹은 날짜에 지불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선제조치 금지** | 담뱃세 인상이 예견되는 시점에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생산이나 재고품을 늘리는 등의 선제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담배제품의 초과 출고를 제한하고, 기 보유 물품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
- **납세표식** | 제조 및 수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불법·적법 제품을 구분할 뿐 아니라, 세법 준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납세필증(fiscal marking)의 적용을 고려함

# Monthly Highlights

## 이 달의 이슈

- **집행** | 납세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설치하고, 집행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며, 법규 위반을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처벌범위를 설정해야함
- **세수 활용** | 담배 세수를 담배규제 프로그램에 지원
- **면세판매** | 담배제품의 면세판매를 제한 혹은 금지하거나, 면세점에서 파는 담배제품에 소비세를 부과하거나, 개인 수입량에 제한을 둠

6차 총회의 또다른 주목할 만한 성과는 무연담배, 전자담배 및 물담배와 같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쉐련 외 담배(tobacco products other than cigarettes)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이들 담배제품에 대한 예방과 규제 필요성은 지난 2010년 4차 총회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당시에는 사용현황이나 시장 규모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당사국간 정책적 논의를 이끌어낼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쉐련 외 담배제품의 유통이 성행하고, 특히 전자식니코틴전달체(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s)의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많은 국가들이 동의를 하였다. 결정적으로,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성에 대하여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오던 WHO가 이번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자담배 사용이 일반 담배제품의 사용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선제적인 예방과 규제 조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함에 따라 가장 대표적인 쉐련 외 담배제품인 무연담배, 전자담배 및 물담배의 예방과 규제를 위한 국가간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이들 담배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과학적 근거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문들이 채택되었다.

특히, 전자담배를 일컫는 ENDS에서 Electronic Non-Nicotine Delivery Systems, 즉 니코틴이 없는 형태의 전자담배 역시 규제와 예방의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에 당사국들이 합의를 하였다는 점은 협약의 그간의 성과를 저해하고 담배사용의 빌미를 제공하는 어떠한 형태의 제품에 대해서도 제제를 가하겠다는 당사국의 결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 밖에도 WHO의 비전염성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글로벌액션플랜 목표인 2025년까지 흡연율의 30% 감소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과 국제협력을 촉구하는 모스크바 선언문이 채택되었으며, 가장 긴 시간동안 논의된 가이드라인 중 하나인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담배경작의 대체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고, 2008년에 채택된 바 있는 협약 제5조3항 담배업계 저해활동으로부터 공중보건 정책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개정 필요성에 관한 결정문도 통과되었다.



[분과 A 회의 진행 장면]



[협약 6조 가이드라인 채택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대표단]

### 또 다른 10년을 위한 준비 : 협약 영향평가와 이행강화를 위한 노력

그 밖에도 협약 발효 10주년을 기념하여 앞으로의 보다 효율적인 협약 이행과 운영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검토되었는데, 협약이 전 세계 담배사용 감소와 건강증진에 기여한 영향도를 평가하기 위한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에 관한 계획안이 당사국의 논의를 거쳐 통과되었으며, 세계무역 자유화의 흐름 속에서 담배업계의 전략으로부터 보건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 하는 결정문이 채택되어 무역 및 투자협정에서

# Monthly Highlights

## 이 달의 이슈

담배제품을 예외품목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또한, 기존의 국가 이행보고체계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이 설치되었으며, 당사국 총회와 회기간 하위 조직을 총괄하는 절차규칙의 개선에 대한 검토 등 전차 총회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의제들이 다양하게 논의되는 등 협약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 제6차 총회 의장국 대한민국의 담배규제 리더십 발휘

FCTC 제6차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우리나라에게 더욱 의미가 있는 이유는 총회 의장국으로서의 대한민국 국가 리더십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12년 제5차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담배규제 분야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협약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의지를 보인 바가 있다. 이번 6차 총회에서는 문창진 전(前) 보건복지부 차관이 총회 의장직을 수행하며 담배규제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특히 협약 운영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 보다 쟁점이 많은 안건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성공적인 총회 결과물을 도출하는 등 성공적인 의장직 수행을 통하여 담배규제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제6차 당사국 총회 전체회의의 현장]



[FCTC 제6차 당사국 총회 문창진 의장]

### 제6차 총회 주요성과 및 향후 담배규제 정책에의 의의

협약 발효 10주년을 앞두고 개최된 만큼 기대도 컸던 제6차 당사국 총회는 역대 당사국 총회 중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와 함께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하여 담배가격 및 조세조치를 통한 담배수요 감소를 골자로 하는 제6조 가이드라인이 채택된 것은 우리나라의 담배규제 정책의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어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담배 제품에 대하여 니코틴 유/무와 관계없이 예방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모든 당사국이 의견을 함께한 것은 앞으로의 담배규제 정책은 보다 선제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어떠한 형태의 제품도 담배사용의 계기(gateway)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협약 당사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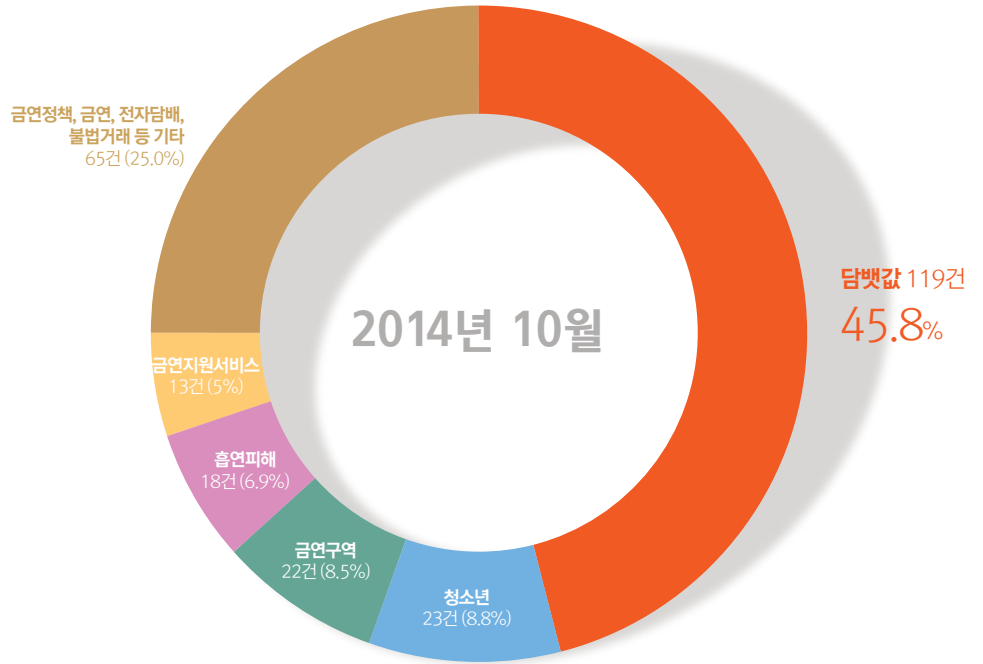
그 밖에도 협약 제17·18조 가이드라인 채택, 협약 영향력 평가, 무역 및 투자 협정에서의 담배규제 문제 등의 안건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범정부적 차원의 담배규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기회이자 숙제인 부분으로, 앞으로 보다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담배규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부처간·국가간·지역간 협력이 담배규제 정책 선진화 전략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고민과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2년간 의장국으로서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감한 이번 총회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담배규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이 더욱 기대된다.

# Monthly Keyword

Monthly Keyword에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가 접하는 다양한 금연이슈를 심층 분석하여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한 달 동안 어떤 이슈들이 제기되었고, 여론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이슈는 또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이 달의 언론 이슈 키워드는 “담뱃값”, “청소년”, “금연구역”

2014년 10월, 국내 주요언론사의 총 260건의 보도기사를 분석한 결과 담뱃값 119건 (45.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청소년 23건(8.8%), 금연구역 22건(8.5%), 흡연피해 18건(6.9%) 등의 기사들이 보도되었다. 그 밖에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정책, 전자담배 등의 다양한 주제가 그 뒤를 이었다.



소셜네트워크에 나타난 키워드와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금연종합대책 발표(9.11) 이후 담뱃값 관련 내용의 빈도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담뱃값 인상에 대한 비판적 경향의 내용은 유지되었으나 흡연율 감소 효과에 대해서도 일부 거론되고 있었다. 또한 금연구역에서의 간접흡연의 불만을 표하는 메시지도 다수 노출되었으며, 전자담배의 잘못된 정보, 판매점 광고 등 다양한 메시지와 함께 국가차원의 전자담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도 확인되었다.

# Monthly Highlights

##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 2012 FCTC 서울총회 - 담배 없는 세상을 만드는 약속. 2012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10주년 기념자료집 All about FCTC. 2014
- WHO FCTC 웹사이트  
[www.who.int/fctc/cop/sessions/en/](http://www.who.int/fctc/cop/sessions/en/)
- WHO FCTC 제6차 당사국 총회 주요문서  
[http://apps.who.int/gb/fctc/E/E\\_cop6.htm](http://apps.who.int/gb/fctc/E/E_cop6.htm)
- WHO FCTC 제6차 당사국 총회 공식 홈페이지  
<http://cop6russia.org/>

# 11

## [11월호 예고]

11월호에서는 젊은 성인층(young adults)을 겨냥하는 담배업계의 전략에 대해 알아봅니다. 젊은 성인층을 공략하는 담배업계 마케팅의 역사와 숨겨진 의도를 파헤쳐보고 이러한 업계의 전략이 실제 젊은 성인층의 흡연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분석하여 담배업계의 전략에 대항하여 젊은 성인층의 담배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 노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고민해 봅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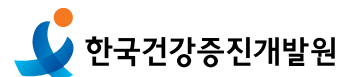
정부 3.0

[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

O C T O B E R 2 0 1 4

#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50-86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4-5층  
Tel. 02-3781-3500 Fax. 02-3781-3583 www.khealth.or.kr

## [ 구독신청 ]

매월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주소로 소속, 성명을  
기재하여 신청해주시요.

※ 홈페이지 주소 : [www.khealth.or.kr](http://www.khealth.or.kr)

※ 구독신청 이메일 주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위해관리팀  
[tcir@khealth.or.kr](mailto:tcir@khealth.or.kr)